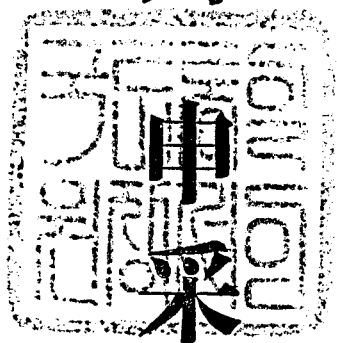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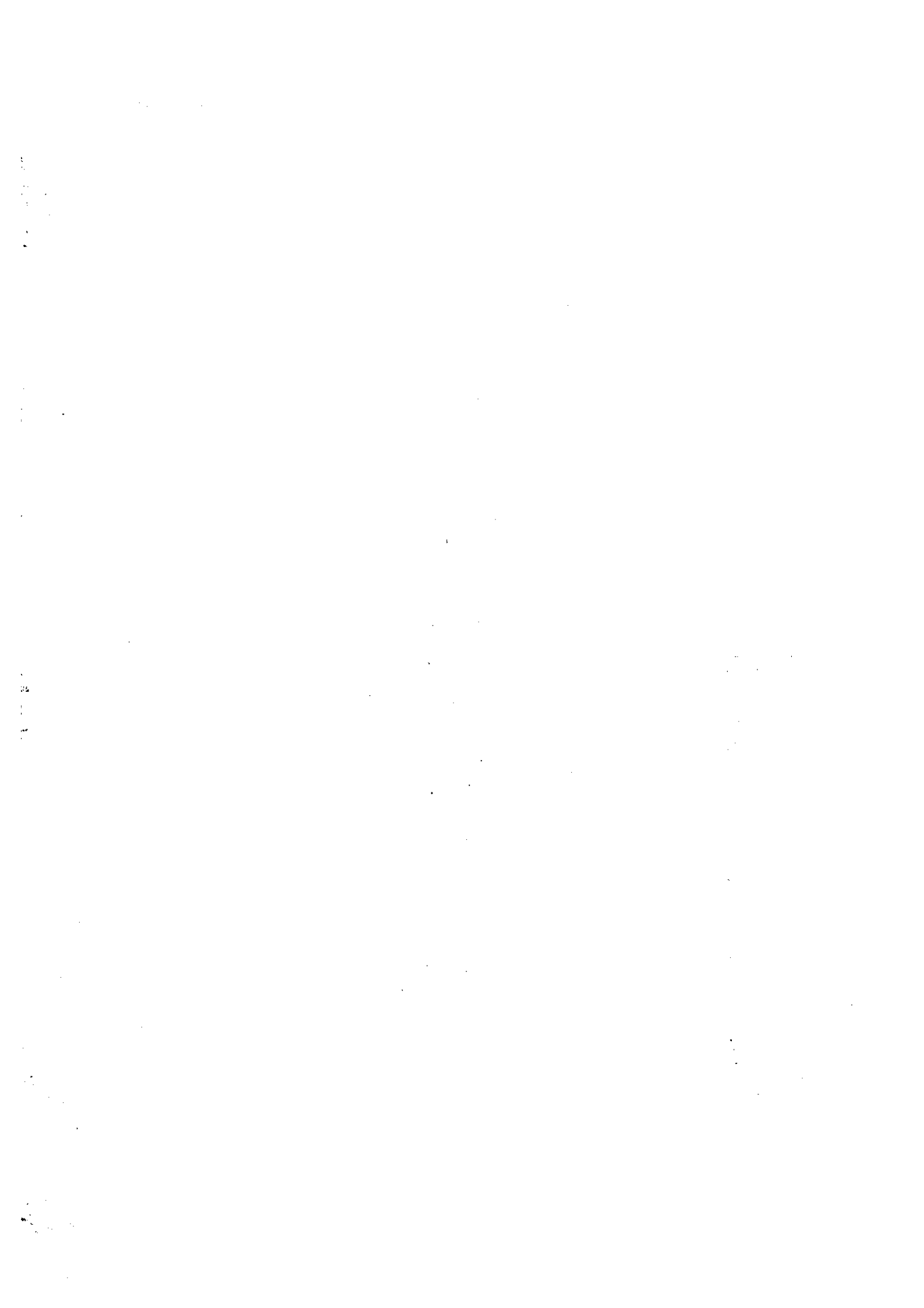
洪以燮
(前延世大·韓國史)

丹
齊



浩

國土統一院
資料管理局
複寫



發 刊 辭

우리 歷史는 三國史記 以來의 事大思想과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으로 國權과 國土만 유린당한 것이 아니라 所謂 植民史觀에 依한 우리 古代 民族史의 許多한 事實들이 隱蔽되고 歪曲되어 왔다. 우리 民族이 1945年 8月 15日 解放이 되었으나 아직도 우리 民族의 正史를 되찾지 못하고 잘못된 觀點과 미흡한 內容의 國史를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고 主張하는 분들의 論擧는 確實하다. 우리는 丹齊 申采浩先生 朴殷植先生 鄭寅普先生等 民族的 主体思想을 가지고 우리 民族의 歷史를 調査研究한 분들의 主張과 記錄에 對하여 注意하고 檢討研究하여 正確한 民族史를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朴正熙大統領께서는 1975年 3月 3日 國土統一院 年頭巡視 때 民族史의 正統性에 立脚한 韓國統一을 追求해야 한다고 指示하시었다. 이 民族史의 正統性은 大韓民國이 繼承하고 있는 것은 分明하지

만 우리 민족의悠久한 지난날의 참 모습을 되찾는데 尽力할
責務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우리 統一院의 担当研究陣은 研究
委員인 學者들과 더불어 歪曲되었거나 隱蔽된 部分의 國史를 是
正補完하는데 爲先 中國의 二十五史를 비롯하여 모든 關聯文獻을
整備調査하여 카드에 整理記錄하는 作業에 着手해야 한다.
그 資料의 하나인 故洪以燮教授의 論文 丹齊 申采浩이를 爲
先 複写配布한다.

一九七六・一〇・三

國土統一院長官

俞 尙 根

目次

一	發刊辭	1
二	丹齊史學的基調	1
	獨立鬪爭의 歷程 / 民族史에의 情熱	2
三	認識의 出發	6
	主體的 기틀 / 植民地史觀에의 挑戰	8
四	古代世界的 追求	10
	民族的 版圖의 回歸 / 歷史地理的 錯簡의 整理	10
	民族的 主調의 確執 / 復古의 歷史的 現實性	12
五	救國의 現實批判	15
	希望의 橋頭堡 / 民族史觀과 愛國心	16
六	植民地体制의 破壞的 否定	20
	朝鮮革命宣言의 背景 / 強盜侵奪政治의 真相	20
	民衆直接革命의 길 / 破壞를 통한 新生	24
七	맺는말	26

一、丹齋史學의 基調

二〇세기 전반前半(二戰前) 곧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그 식민지적 약탈기에 있어서 민족적 독립 투쟁과 함께 전개된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의 「조선사朝鮮史의 비판적批判的 인식認識」은, 근대 정신近代精神을 주조主調로 하여,

- (1) 조선 왕조의 쇠망衰亡—해체기 解體期에 있어서의 민족사民族史의 방법, 精神
- (2) 고구려 高句麗 발전의 민족적 기틀, 그 구강 舊疆의 재인식과 그것의 정신사적 精神史的 추구,
- (3) 이민족 異民族 침략에 있어서 그 배격 排擊·방어 防禦의 영웅英雄(장군將軍)을 역사

에 재현再現하는 데에 힘썼다. 이러한 작업은 신문을 통하여 해체기 解體期의 대중大衆에게 호소 되었으며, 이 인식認識의 테두리에서 구한말 韓末의 그릇된 국사 인식 國史認識의 배격 排擊의 비판을 강행強行, 쇠망衰亡의 현실에서 만주 滿洲에 표박漂泊, 화북華北 일대에 서 독립 투쟁을 하는 한편 「조선사朝鮮史」의 인식을 체계화함에 전傳해 오던 부용적 附庸的 내지 식민지적(의 추축縮, 민족 부정적—편면적 쇠망론喪亡論) 사관史觀의 배격적 排擊을 기저基底로 하였으며, 一九二〇년대 초에는 독립 투쟁의 기본 방향과 논리가 「조선 혁명 선언朝鮮革命宣言」으로 제시된다.

* 단재 신채호(丹齋申采浩) — 단재(丹齋) 외에 단생(丹生) · 금함산인(錦項山人) · 무애생(無涯生) 등의 호가 있음.

獨立鬭爭의 歷程

단재는 一八八〇年(고종 高宗 十五年) 十一月 七日 충청도 대덕군 大德郡 정생면 政生面 도림리 桃林里에서 봉건적 양반 선비 封建家系의 둘째 아들로 출생. 一八八七年 아버지 신광식 申光植을 여원 후 할아버지 신성우 申星雨와 어머니 박씨 朴氏를 따라 청원군 淸原郡 낭성면 琅城面 귀래리 歸來里(고두미)로 이사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할아버지의 한문 사숙 漢文私塾에서 한문을 배워 신동 神童 소리를 들었다.

十九世(一八八六) 고종 高宗 十一年 가을에 출향 出鄕, 서울 성균관 成均館에서 독서 讀書할 때, 나라의 실정 實情과 조선사 朝鮮史와 세계사의 바른 이해에 정신을 모았으며, 청년들에게 강의할 기회를 얻게 되자 사회 社會 形편을 일깨워주고, 한문 漢文의 무용 無用과 자기 의식 自己意識을 고취시켰다.

* <성웅 이순신전>은 <대한 매일 신보>에 一八九년 七月 二일부터 八月 十八일까지, <독사 신문(讀史新論)>은 八月 二일부터 十月 二일까지 연재됨.
* <이태리 건국 삼걸전(伊太利 建國 三傑傳)> 一八九〇년 一〇월 二일부터 광학사포(廣學書館) 발행.

일제 日帝의 침략, 을사조약(乙丑條約)의 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하여 식민지로 몰릴 때 투옥 投獄된 장지연 張志淵의 뒤를 이어 <황성 신문 皇城新聞>의 논설 論說 위원으로 민족의 자성과 국가의 독립을 외쳤고, 그 이듬해(一八九〇) <대한 매일 신보 大韓每日申報>의 주필 主筆로 양기탁 梁起鐸·배설 裴說(영구인 베델)과 민족의 정기 正氣를 부돋우었다. 단재는 신문 新聞을 통하여 <성웅 이순신전 聖雄李舜臣傳>(一八九〇)·<독사 신문 讀史新論>(一八九〇) *을 연재하고, <을지문덕 乙支文德>(一八九〇)·<동국 거결 東國巨傑崔統傳>(一八九〇)을 간행하여 위기에 처했을 때 민족·국가를 위하여 싸웠던 명장 名將들의 정신과 행적을 알리고 애국자가 나오기를 외쳤다. 이보다 앞서 량치차오 梁啟超의 <이태리 건국 삼걸전 伊太利建國三傑傳>*을 역술 譯述하여 서구 西歐의 예도 소개하였다.
단재는 거족적 비밀 조직이었던 신민회 新民會의 한 사람으로 조국 광복에 힘쓰다

가 일제 日帝의 강압 약탈이 심해지던 一九一〇년 四월 안창호 安昌浩·이갑 李甲 등과 서울을 떠나 평양 平壤 부도 오산 학교 五山學校에 들렀다가 청룡의 창파 淸龍의 창파 淸波를 거쳐 아령 俄領 블라디보스톡 海參崴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단재에게는 독립 투쟁과 국사 國史 연구가 실천적 實踐的 的 的 과제가 되었다.

一九一九년 일제 日帝에 대한 항쟁이 제기되자 이역 異域에서 이에 진력 盡力, 정부 조 직에 있어서는 한양 漢陽 政府의 법통 法統을 강조, 상하이 上海를 떠나 베이징 北京으로 돌아가 궁핍과 굶주림 속에서도 일년 一畝 국사 연구에 집착, 이광수 李光洙가 베이징 北京으로 단재를 찾아가 상하이 上海의 <독립 신문> 주필 主筆이 되기를 청했으나 거절 拒絶, 오로지 「조선사 朝鮮史」의 집필에 힘썼다. 一九二三年 一월 <조선 혁명 선언 朝鮮革命宣言>의 열단 선언문 義烈團宣言文을 의열단 義烈團의 부탁으로 썼는데, 그 전까지의 독립 운동의 행동·정신면을 전면적으로 비판, 독립 운동은 다만 힘에 의한 투쟁으로 대중적 大衆的 이어야 함을 규정 規定함에, 서구 西歐의 근대적 혁명 이론을 이끌어 들인 것 같다. 같은 해에 임정 臨時 政府 국민 대표자 회의 國民代表者會議가 개조 改造·창조 創造 두 파로 갈리자 단재는 창조파 創造派의 자리에서 대립 활동 또 一九二四年 서울의 <시대 일보 時代日報>에서 최남선 崔南善이 화국을 청하자 거절하였다.

民族史에의 情熱

이 사이 一九二二年 이윤재 李允宰*가 베이징 北京 관음사 觀音寺로 단재를 찾았을 때 「조선사」의 저작을 권하자, <조선사 통론 朝鮮史通論> <문화편 文化編> <사상 변천편 思想變遷編> <강역고 疆域考> <인물고 人物考> 등 다섯 권을 꺼내어 보이며, 이외에도 부편 附編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비치었음에서 초고 草稿로는 거의 조선사의 체계가 잡히었던 것 같고,* 이 논고 論稿의 테두리가 곧 근근

* 이윤재(李允宰) - 국어학자·사가학자. 조선어학회 사장으로 일경(日警)에 잡혀 함흥(咸興) 감옥에서 옥사함. 一八八一-一九四一.
* 이윤재(李允宰) <북경시대(北京時代)의 단재(丹齋)> 참조.

히 전하는 단재 사학 丹齋史學의 대강 大綱인 것 같다.

망명의 길을 떠난 지 十五년되던 一九二五年 고대사 古代史 관계의 일련의 원고가
고국으로 보내져 <동아 일보 東亞日報>에 실리게 된다 (1월 31일 - 10월 16일 연재).

- (1) 고사상 이두문 명사 해석 古史上 吏讀文名詞解釋
- (2) 삼국사기 중 동서 양자 상환
- 고종 三國史記中 東西兩字 相換考證
- (3) 삼국지 동이열전 교정 三國志 東夷列傳 校正
- (4) 평양
- 평수고 平壤洪水考
- (5) 전후 삼한고前後三韓考
- (6)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 대사전
- 朝鮮歷史上 一千年來 第一大事件*

* <동아 일보>에 실린 이 원고들을 후에 <조선사 연구초 朝鮮史研究草>로 묶어 一九三三年 동지들에 의해 한장 (漢裝) 간행됨.

* 一九三三年 七月 1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회에 걸쳐 <조선사(조선상고사)>를 연재하고,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10회에 걸쳐 <조선상고문화사>를 연재함.

이외에 관련된 <육가야 천국고 六伽倻國考>와 <정인공공 약전 鄭仁弘公略傳>의 두편은 일일 日誌에서 구상했을 뿐 단재 자신이 영오 瑛圃 叢에서 매몰 埋沒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여 마지않았다.

독립 투쟁의 한 방편으로 아나카즘의 실천적 운동을 전개하던 중 一九二八年 五月 八일 大連 大連에서 일경 日鏡에게 잡혀서 위순 旅順의 감옥에서 一〇년 형에 얽매어 있었다. 이 감옥에서 <조선 일보 朝鮮日報>에 <조선상고사 朝鮮上古史> (1923)와 <조선상고문화사 朝鮮上古文化史>를 연재할 때,

「서적을 수집 搜集, 지중 地中의 유물 遺物 발굴 발굴, 문인 文人·학자 學者를 모아 一〇년 백년 한을 다하여 대규모로 진정한 조선을 장만할지니, 성誠과 학력을 갖추어 가진 사람에게 기다릴 바 아니라.」

하였으며, 또 우중 叢에서

* 1932년 11월 22일
〈조선 일보〉.

* 〈조선 상고사〉는
원래 〈조선 일보〉에
〈조선사〉로 연재된 후
출판을 위해 지형(紙
型)까지 완성했으나 뜻
을 못 이루고, 해방 후
인 1945년에 전의 지
형을 그대로 살려 출
판됨.

「내가 만일 10년의 고역을 무사히 마치고 나게 된다면 정정(正正)하여 발표하고자 합
니다.」

— 申榮雨 〈丹齋獄中會見記〉*

하여, 민족사(民族史)에의 애착·정열과 함께 학예에의 겸허(謙虛)를 토로하였다. 이러한
정신을 안재홍(安在鴻)은 〈조선 상고사(朝鮮上古史)〉* 권두언에서, 「단재의 일념은 첫째 조
국의 쇠락한 재건(再建)이었고, 둘째는 그것이 미처 못될진대 조국의 민족사를 꼭바
로 써서 시들지 않는 민족 정기(正氣)가 두고두고 그 자유 독립을 꾀(圖)는 날을 만들
어 기다리게 하자 함이었다」고 요약하기도 했다.

즉 의세(外勢) 침략에 대해서 역사상 대표적 인물(英雄)·장군(將軍)론(論)에서 외적 방
어의 정신과 행동을 찾으려 했고, 그릇되어 가는 구한국(舊韓國)의 현실에의 혁명적
정신을 정인홍(鄭仁弘)에서 찾으려 하였다. 또한 그때의 한부(韓部)의 교과서(教科書)가 잘못
됨을 〈독사(讀史) 신론(新論)〉에서 통격(痛擊) 부정하였다. 그리고 베이징(北京)의 객사(客舍)에서
조선사의 체계를 세워서 서술할 때, 「아我(我)를 중심한 무릇의 추구 전개(展開)에서, 역사
인식의 새로운 정신을 찾았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적(植民地的)
 조작(操作)으로서의 위증적(僞證的) 고대 강역론(古代疆域論) 즉 (1) 한(韓)·만(滿) 분리론(分離論)에서
(2) 조선사의 위축(萎縮)이라는 반(半)사관(半)사관(史觀)을 억지(抑止)하려 했던 것이다. 즉 일제(日
帝)의 식민지 관료들에 의한 조선사의 왜곡(歪曲) 내지 민족적 전구성(前趨性)의 부정·말
살의 간계(奸計)를 공박(公擧)·배격(排擊)하였다.

그러나 단재 사학(丹齋史學)은 상고(上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틀은 자기 시
대의 「조선 현실(朝鮮現實)」에 두었고, 인식의 초점은 식민지 현실을 힘으로 부정하려
는 현존적인 독립 투쟁에 두었다. 단재는 투쟁의 한 방법을 아나키즘(anarchism) (무

민족적인 입장에서 인식하고, 이제까지 그러한 인식 없이 다루어 오던 「조선사」에 의 그릇된 인식을 우선 교과서 비판에서부터 배제코자 하였던 것이다.

근대적인 교육의 틀이 잡히지 못하였고, 자유롭고 과학적으로 민족적인 자리에서 국사國史를 근대적 학문으로 다룰 아무 조건 하나도 지니지 못했던 당시로서는, 시급한 비판의 대상이 곧 교과서를 빼고는 없었고, 오직 신문지상新聞紙上을 통하여 국가 민족에의 향념向念을 지닌 의식적인 독자층讀者層에게 그것을 호소하는 것만이 단 하나의 남은 길이었다.

단재는 교과서 비판(독사新史新論)의 서론에서, 한 나라의 역사는 민족 발전의 사실을 밝히 살펴서 서술할 것이니, 민족을 잃으면 역사가 없어질 것이며, 역사를 버리면 민족의 그 나라에 대한 정신이 없어진다고 하여, 역사가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고대사古代史(동서東西의 옛 기록)를 근대적 의식에서 보아야 한다는 데서 「조선 고사朝鮮古史」를 새로이 체계 지을 것을 절대絶對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구한국이 일제의 침략 정책에 따라서 쇠망衰亡해체解體되고 있을 때 단재의 「국가와 역사」관은 역사 인식의 기본 정신을, 「국가가 이미 민족 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有機體인즉, 단순한 혈족血族으로 전래傳來한 국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 민족이 혼합 집결되어 형성한 국가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중에 늘 주동력主動力이 되는 특별한 종족이 있어야 비로서 그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예컨대 만일 한 반鮮 위에 모래를 뿌리듯이……서로 물키어 서로 내가 장부丈夫나 내가 장부 나고 이전異見이 대립된다면 한 민족의 정치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한 부락 단체도 완전하게 자립하기가 어렵은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건설 문제는 어찌

서로 논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것은 고대 古代에 있어 국가 기원 起源을 역사적으로 서술함이 지난 過去의 일임을 제시한 바로, 당시 학교에서 사용하던 교과서의 내용을 평하는 전제 前提이었다.

「여유가 현금 각 학교 교과용의 역사를 관觀하던대 가치 유한 역사가 태무 殆無하다. 제 一장을 열閱하며 아민족 我民族이 지나주 凌那族의 一部分인 듯하며, 제 二장을 열하면 아민족이 선비족 鮮卑族의 一部分인 듯하며, 말내 末乃 전편 全篇을 열진閱覽하면 유시호 有時乎 말갈족 靺鞨族의 一部分인 듯하다 유시호 有時乎 몽고족의 一部分인 듯하며 유시호 有時乎 족의 一部分인 듯하다 유시호 有時乎 일본족의 一部分인 듯하니 오호 嗚呼라 과연 여차 如此할 진대…….」

〈讀史新論〉

그렇다면 우리 강토 疆土가 다른 민족의 난투장 亂鬪이었고, 전 역사에 남의 제도·문화가 번갈아 뒤섞여서 「나」 「대한 大韓」은 흔적이 없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 反問痛駁하였다.

植民地史觀에의 挑戰

조선 왕조가 지배 권력의 쟁탈로 쇠망의 길을 밟고 있다가 一九〇五年 일제 日帝가 통감부 統監府를 칙투시키고 식민지 殖民地 정책을 강행할 때, 즉 표면상 表面上 植民地인 「대한 제국」 정부를 통해서 실질적인 식민지 지배를 할 때 교과서 教科書 檢閱 檢閱을 하였다. 당시의 「대한의 역사」란 아직 「동국사 東國史」라고 할 때라 한부 學部의 교과서 편찬 주부 主務를 맡았던 현채 玄采*가 편작 編作한 〈동국사략 東國史略〉은 교과서로 쓰인 물론 일반 식자 識者에게도 널리 읽히었는데, 이 책부터가 단재가 거의 부정적으로 비판 배격한 대상이 된 것은, 현채

* 현채(玄采) 一 학자. 호는 백당(白堂). 구한말 학부 원집주(編輯局長)에 근무하면서 지리·역사 등의 관한 많은 교과서를 편찬, 그 후 우리나라 역사서술 체계의 큰 기준이 됨. 「고종」 「건국」.

혹은 일본인의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 또는 신사(進賢), 한학(漢學) 전공, 중국 고대 연구에 있어 조작적(造作的) 부정설(否定說)을 내세웠음. 『서론(서론)』의 『조선 통사(朝鮮通史)』를 골자로 하여 문화·풍속 관계를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이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의 인식 체계(認識體系)는 후일 육당(六堂) 최남선(崔南善)의 『조선 역사』(후에 『고사통고(高史通考)』 등으로 보충 변모되었으나) 기본 체계는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의 것과 대동 소이(大同小異)이다. 문화(文化)면이 첨가되었을 뿐이다(에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문제는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의 『조선 통사(朝鮮通史)』의 그릇된 인식 체계가 비판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구한말 대한 제국의 해체 과정에 있어서 이미 그릇된 국사 인식의 파괴 내지 부정적 비판은 단재의 교과서 비판에서 비로소 바른 인식의 추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릇된 역사 인식을 시정하는 데 북에만 의존할 수 없었던 단재는 한편 신민회(新民會)에서 행동으로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을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신민회는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를 위시하여 전덕기(全德基)·이동휘(李東輝)·이동녕(李東寧)·이갑주(李甲周)·양기탁(梁起燾)·안태구(安泰國)·조성환(曹成煥)·노백린(盧伯麟) 등 수많은 지도적인 인물들이 전국적으로 조직한 비밀 결사이었으므로 그 구성원이 명확하지 않으나 8백여 회원이 있었다고 한다.*

단재의 역사 정신이 독립 투쟁과 함께 전개되는 기점(起點)은 1905년에서 1908년 4월 연해주(沿海州)로 망명하는 데서 찾게 된다. 단재는 역사가로서의 책임을 행동으로 옮겨 투쟁적으로 수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 안창호 등지의 인식(認識)은 <한글 독립운동사> 9권 1편 참조. 『조선사』 1권 100쪽 참조.

三、古代世界の 追求

〈독사 신론(讀史新論)〉에서 역사의 위축(萎縮)된 착간(縮簡)을 공격한 단재는, 고대사(古代史)의 세계를 본바닥이었던 만주(滿洲)·화북(華北)의 대륙에서 다시 발견할 것을 강조하였다. 단재는 모든 것을 압록(鴨綠)·두만(豆滿) 양강(兩江) 이남(以南)으로 끌어들이 집착(執著)시키려는 위축된 견해를 배격했다.

당시 하야시 타이스케(林泰輔)의 〈조선 통사(朝鮮通史)〉를 추종하던 민족의 版圖의 回歸 구한말(韓末)의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안목이 없었고

한편 짧은 기간의 구한말의 그 어실은 국사(國史) 교육(敎育)도 一九一〇년 八月로 끝을 맺게 되었다. 일제는 통감부를 총독부(總督府)로 개편함과 동시에 다수의 책자를 강탈(竊取)하였다. 이때 역사에 관한 책자 속에 단재가 비난하던 교과서 등이 끼어 소각(燒却)하였는데, 이때 역사에 관한 책자 속에 단재가 비난하던 교과서 등이 끼어 있어서 후대에(심지어는 오늘날까지) 그 금서(禁書) 목록(目錄)에 들어간 한국사(韓國史) 등이 민족적인 올바른 것으로 오인·착각되고 있다.

단재는 연해주(沿海州)에 체재하는 동안에도 그 방면의 고구려 또는 고려의 유적을 탐문하였고, 연해주를 떠나 간도(間島) 지방을 탐색하고, 다시 백두산에서 그리고 압록강(鴨綠江)의 여행에서도 고구려의 유적을 실지(實地) 조사하고, 지안현(智安縣)에서 통고(通古) 우룡의 광개토태왕릉비(廣開土大王陵碑)를 현지에서 관찰하는 등하여, 고구려가 만주에 서(遼) 옹동(遼東)·랴오(遼) 호강(河)을 넘어 서쪽, 그리고 서북쪽으로 화북(華北) 지대로 진출

* 기본(Gibbon, Edw. Gibbon) - 영국의 역사가. 프랑스 · 이탈리아를 편력 후 자국을 종합하여 저술한 <로마 제국 흥망사>가 유명함. 1776년 - 1794년.

* <단재 신채호 전집 (丹齋 申采浩 全集)> 상권 19 - 23면 참조.

하고, 다시 압록 강(江) 남의 땅으로 뻗었던 활동 범위가 고대에 있어 민족적 활동 강역(疆域)이었음을 후일 <조선 상고사(朝鮮上古史)>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뒷날, 단재가 기본*의 <로마 제국 흥망사(羅馬帝國興亡史)>를 읽었다는 일화(逸話)가 전하는데 그것과 역사 인식(歷史認識)에 있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로마 제국 흥망사>를 보고 싶어 한 의도가 흥망(興亡) 자체의 사실에서 어떤 지견(知見)을 얻는 동시에, 로마사의 사실이 해에서 지중해(地中海)를 중심으로 한 로마의 판도(版圖) 곧 로마의 「지중해 세계(地中海世界)」를 추구함에 있어, <조선 상고사>의 구조(結構)를 이루었던 고구려(高句麗)의 동북(東北)에 있어서의 「고대적 세계(古代的世界)」(주로 판도(版圖) · 강역(疆域)를 추구해 보려는 데 관련이 있었던 것 같다.

歷史地理的 錯簡의 整理

一九三一年에 일제(日敵)의 위순(旅順) 감옥에서 고구려(高句麗) 보내어 <조선일보> 지상에 발표한 <조선 상고사>는 「고대 세계(古代世界)」의 추구에 초점을 두었다. 총론(總論)*에서도 고대 세계의 구조적(構造的) 인식에 집중적이었으며, 강토(疆土)의 신축(伸縮)과 민족의식 · 사상의 변천, 그리고 동북(東北) 제족(諸族)과의 역사적(史的) 관계 · 교섭을 특히 주시하였다. 물론 기사(記事) · 문화 ·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는 있으나 오히려 전자의 제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었다.

단재의 이런 역사 인식은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서 대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일제(日帝)의 대륙 침략 정책으로서의 한만 분리론(韓滿分離論)에 대항하는 역사의식으로서, 우선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고구려 구강(舊疆)의 바른 이해에서 고대적 세계를 추구하는 동시에, 일제(日帝)의 남만주 철도 주식 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 학술부(學術部)(후의 조사

*시라토리 쿠라키치
(白鳥庫吉) - 일본의 동양사 학자. 『고고』 『고고학』 등.

*단재 신채호 전집
상권 - 1권면.

*단재 신채호 전집
상권 - 1권면.

*단재 신채호 전집
상권 - 1권면.

부調部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가 책임자가 되면 <만주 역사 지리(滿洲歷史地理)> (三)과 <조선 역사 지리(朝鮮歷史地理)> (二)에서 압록·두만강으로 절단하여 한반도의 관계를 역사 지리적으로 분리하려는 침략적인 작업에서 한국사의 고대적 세계를 파괴·위축시킴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단재의 <조선 상고사> 「제五편 고구려 전성 시대」* 이전으로 소급溯及한 「제二편 수두시대」에서 「제四편 열국 정응 시대(列國爭雄時代)」(대한족 격전 시대(大韓族激戰時代))*까지는, 고대 단재(古代段階)의 혼란한 역사를 합리적 이해(理解)의 바탕에서

만주와 강남(江南)에 걸친 고구려의 발전적인 역사의 기틀을 이해하는 선행(先行)적의 전제(前提)인 새로운 인식이 있으며, 구겨지고 접쳐진 모순된 착간(錯簡)을 평면(平面)에 배열하던 당시에 있어서 선구적인 최초의 작업이었다. <조선 상고사>는 백제

의 멸망까지로 멈추었다. <조선 상고 문화사(朝鮮上古文化史)*는 실질적으로 <조선 자리적으로 종전의 착간(錯簡)을 정리하고 있다. 주로 한민족(漢民族)과의 갈등을 역사

民族的 主調의 確執 단재 사학(丹齋史學)에 있어 <조선 상고사>와 <조선 상고 문화사>에 앞서서 단재가 고대적 세계를 추구하는 선행(先行)적의

인 작업으로 <을지문덕(乙支文德)> (二) (三) <동국 거절(東國巨傑) 都統傳> (二) (三) 등 을 낼 때.

「...우리나라 수백 년의 대외(對外) 관계의 역사는 나라 안에 한 때의 외적(外敵)만 들어와도 구차하게 모멸(莫蔑)하려 함에 치우(馳)우(憂)이 다하였으니, 우리 민족의 열약(劣弱)함이 과연 천

성天性이라 고쳐질 수 없을까?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다.」(大意)

〔乙支文德〕緒論

「...『支麟』을 떠난 뒤에 나라 안의 이름 있는 산수山水를 찾아 돌 때 석다산石多山에 올라
을지문덕을支文德의 옛터를 슬피 생각하며, 압록강가에 이르러서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장
엄했던 옛터를 우리러 보며, 서쪽으로 요동遼東의 벌을 바라보고 바보 온달溫達의 응대한
계락을 생각하며, 북으로 읍루靉婁의 옛터에 대조영大祚榮의 자취를 가리며... 영웅英雄이
불우한 신세를 못맞다니...」(大意)

〔東國巨傑崔都統傳〕

하여『을지문덕』에서 고구려족의 강건한 정신과 활동을 찾고 그 전기傳記에서 상고
사상古史의 일부를 시정했으며, 『최도통전』에서 기우는 고려 왕실에 대한 최영崔瑬
장군의 충성과 함께 옛 고대적 세계—고구려, 그 후계後繼로서의 발해渤海의 역사를
추구하는 정신을 추앙推仰하였다. 단재에 있어서 고구려의 역사적 추리推理가 곧 이
민족의 역사적 주조主調의 확립確執이었다. 미완未完의 고본稿本인 『독사 신록讀史新論』
제10장의 서도.

「아! 우리나라가 압록강 서쪽을 떠돌아 다니며 물려주었음이 언제부터이었는데? 김
부식金富弼의 『삼국』의 역사를 편찬하던 때로 시작되었다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大意)*

「...저 김부식金富弼의 마음은 오직 자기 조정朝廷 즉 고려에게 정통正統을 물려주는 데만
있으니, ...내가 통탄하는 것은 그 후 수백 년 동안 이 나라 역사가 도시 김씨의 잘
못을 그대로 밟았으므로 발해渤海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 보이지 않았다...」(大意)*

이런것 단재는 김부식金富弼이 압록강 너머의 대지大地를 역사에서 버리고 양강兩江

* 단재 신채호 전집
상권 101면 참조.

* 단재 신채호 전집
상권 100면 참조.

이남으로 위축한 데서 발해渤海가 「조선 민족」의 역사적 전통의 체계에서 배제排除
 일탈逸脫됨을 통탄하고, 또 김부식 이후의 역사가 이를 아울러 비난하였다. 그러나 그
 비판적인 재검토가 단재 사학丹齋史學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재는 구한
 국의 멸망과 함께 만주·화북華北 그리고 상하이上海 등지로 망명 유리流離하게 되었
 다. 그러나 망명의 객사客舍에서 궁핍窮乏을 태연히 견디며, 「고사上古史」에서 추구한
 고구려 구강舊疆의 이해를 위한 「삼국사기三國史記」 본기本紀의 본문 비판과 함께, 이
 에 관련된 중국 中國文獻의 파괴적破壞的 분석은, 한국사에 있어서 고대적 세계의
 추구에 신생면新生面을 개척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한 중국사中國史의 수정인식
 修訂認識을 추리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근일 이리한 분석 分析方法的을 독창
 的獨創的으로 발전한 것처럼 도용濫用하는 예가 있음은 한심하다).

復古의 歷史的 現實性

한편 최영崔瑩 장군의 정신이 여말麗末에 한하지 않고 고려
 의 정치적 의식의 주류主流을 이루고 있었음은 「조선 역사

* 1925년 1월 1일
 10월 1일.

상 일천 년래 제일 대사건大事件 一千年來第一大事件」에서 규명하였는데, 이 연구는
 一九二五년 「동아일보」에 함께 연재*된 「고사상」이 두문 명사 二名史家 古史古史 史蹟史蹟
 解釋」 「삼국사기증동서양자상환 고증三國史記中東西兩字相換考證」 「삼국지 동이열전
 高麗三國志 東夷列傳 校正」 「평양 평수고平壤沮水考」 「전후 삼한고前後三韓考」와 같이 상고사
 의 비판적 연구의 선행적先行的 기초적인 基底的인 해명을 위한 것인데(후일 「조선
 사 연구초朝鮮史研究」로 한데 묶었다), 이 여러 논고論考는 고대사를 뒤덮고 있는 한
 자漢字의 복면覆面을 박탈하는 최초의 작업이었다. 일본의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
 · 이마니시 류유今西潤* 등도 「조선 고대사 연구朝鮮古代史研究」에서 이 방법을 쓰고는

* 이마니시 류유(今西潤) 「일본의 동양사학
 자」 한국 고대사 연구
 가. 1925-1926.

있으나 식민지적 필한 弊下 내지 위축萎縮, 한만 분리 離隔分離의 전체적 前提의 목표를 둔 데에 문제가 있고, 더구나 한척 漢籍 고문헌 古文獻의 분석·비판에도 난점 難點이 많았다.

단재의 사학은 그 출발점부터 일학도 日學徒들의 「식민지적 사관史觀」의 악소산 惡所産을 배제하고, 민족적인 활동—전개 展開를 상고사에서 바로 밝힘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짐을 지표 指標로 하였을 뿐 아니라, 고대적 강건 強健한 정신의 수계 受繼로써 침략적인 일제 日帝 배격의 정신을 잡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데에서 단재의 〈조선상고사〉에 맺힌 정신은 단순히復古的인 정신이라고 쓸어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성을 지니고 있었다. 불행히 상고사에 이어 그 후대사 後代史가 체계화되지 않았으나, 정신적으로 조선시대로 계승되는 민족 의식의 추구는 지속되었고, 발전적으로 식민지 현실을 폭력으로 파괴 부정하는 정신의 추구는 정지되지 않았다.

四、救國의 現實批判

단재 丹齋는 어떤 주의 主義의 노예 奴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렬하게 자기 정신을 주장하면서 한편 척과 싸우기 위해서는 폭력의 방편 方便을 끌어들이는 것을 또한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신과 그 실천은 단계적 段階的으로, 구한국 舊韓國의 쇠퇴과정 衰亡過程에 있어서는 一九〇五年 十一月의 일제 日帝의 통감부 統監府—식민지 약탈 기구의 설치, 침략적 조약 條約의 체결에서 국가를 구해야겠다는 절규 絶叫로서의 역

사 인식으로, 그리고 대한 제국 大韓帝國의 멸망 후에 있어서는 식민지 현실에 도전 挑戰하는 정신(진술 前述한 고대적 古代的 세계 世界的 추구, 식민지 현실의 부징)과 그 실천으로 전개되었다.

一九〇五年 무렵에서 一九一〇년 고국을 떠날 때까지 남긴 여러 논고 論稿에서 단재는 (1) 역사적인 의식을 통해서 희망해 가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절규하고, 또 (2) 직접 현실에 호소했다. 이 두 유별 類別의 문장 文章은 망명 客地에서라도 그대로 역사적 현실의 비판 추구에 사용되었다. 단재의 사상은 역사의 민족적 의식으로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독립 투쟁의 방편이기도 했다.

希望의 橋頭堡

단재가 희망 과정의 구한국 현실에 대하여 끝까지 희망을 지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희망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단재는 민족이나 강토 疆土 전체가 괴멸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적인 부패 집권층의 멸망—대한 제국 大韓帝國(이미 통감부의 지시에 굴종 屈從하고 있던 애국적 愛國賊)의 해체 解體로만 보았다. 민족이나 강토는 존속하는 것이며, 또 존속하기 위해 희망을 갖고 투쟁할 것을 지시했다.

「아, 오늘 우리 대한에 무엇이 있는가? 나라는 있건만 국권 國權이 없는 나라이며, 인민은 있건만 자유가 없는 백성이며, 화폐는 있으나 주조권 鑄造權이 없고, 법률은 있건만 사법권이 없고, 삼림 森林이 있으나 내 소유가 아니며, 광산이 있으나 내 소유가 없고……그러하니 교육에 힘을 써서 내일의 인물을 키울 대 교육가 大教育家가 있는가? 이것도 없으며, 그러하니 식견이 뛰어난 온 국민의 정신을 개발 開發할 대 실문학 大所聞家가 있는가? 이것도 없으며, 대철학가·대문학가도 없으며 대이상가 大理想家·대모험가도 없

* 一九〇八年 四月, <대한 협회 월보> (大韓協會月報) <계재> <단재 신채호 전집> 하권 三三三면 참조.

다. 텅 비고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 아무 데도 쓸모 없는 사람이 되어, 그 참담한 광경은 어린 아이는 배고파 우는데 병 속의 조알까지 다 먹은 극빈(極貧)한 집의 어더운 겨울 같다. 그 생활은 마치 도탄(塗炭)에 빠짐과 같으며 산업(産業)은 산산히 파멸된 뒤니 오늘 우리 한국민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할 것인가? 아, 내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깊이 생각해 보전대, 아직 한 가지 긴한 것이 남아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희망뿐이다.」(大意)

<大韓의 希望>*

이렇듯 대한제국의 멸망의 양상을 그대로 지적하고, 그 파멸의 난경(難境) 속에서 마지막 남아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 단재는 이 「희망」을 탐색하기 위하여 한국사의 사실을 들추어 찾고 또 당시의 열강(列強) - 제국주의 여러 나라의 발전에 대하여 그들이 국난(國難)을 이겨냈음을 지적한 다음,

「내가 한국사를 논하건대 기왕에 고통이 있었던가? 나라가 여러 백 년 완전한 독립(獨立)권을 잃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나, 내정(內政)의 자주(自主)를 보아도 독립이며, 외교의 조약(條約) 맺음을 보아도 독립이며, 관리(官吏)의 드나듦을 보아도 독립이며, 화폐(貨幣)의 주조(鑄造)를 보아도 독립이니.... 국민이 옛부터 전제(專制) 정치(政治) 아래 놀려 살았다 하나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며 혼자 즐거워함도 내 자유며, 부하 二〇세기의 보호(保護)나 압제(壓制)나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같이 아주 다르되....」(大意)

<大韓의 希望>

일제의 침략은 전일(前日)의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곤경(困難)임을 통탄하고, 조정(朝廷)의 악덕(惡德) 때 總總(總總)들의 잘못도 결과적으로는 전체 국민(國民)의 책임이니, 우리 국민들은 오늘날부터 큰 희망을 갖고 발전하여 대국민(大國民)이 되자고 부르짖은 점에서 본다면 그

희망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큰 포부抱負며, 동시에 강한 힘을 말하는 것 같다. 또 희망의 달성을 예측豫測하는 데 시간時間 대신 인내忍耐를 강조했다.

「그런즉 몇십 몇백 년 뒤일지라도 한국은 끝내 한국인의 한국이 되어야 타국의 굴레를 벗을까? 그 국민이 그 나라를 제 나라로 생각하면 그 나라가 제 국민의 나라가 되며, 그 국민이 그 나라를 남의 나라처럼 보면 그 나라가 남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될 것이니,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원칙原則이다。」(大慈)

〈大韓의 希望〉

그래서 단재는 「제군諸君들아, 오늘이 과연 어떠한 날인가? 이 국민에게 이 희망을 성취케 하는 사람도 제군이요, 실패케 하는 사람도 제군이니」 하고 동포에게 호소하고 있다.

民族史觀과 愛國心

웅장한 문장文章으로 된 〈대한의 희망〉이 〈대한 협회 월보 大韓協會月報〉에 실리던 一九〇八年 四月은 이미 구한국이 실권을

저의 완전하게 상실하고 있을 때였다. 이때 단재는 〈을지문덕乙支文德〉 〈동국 거절최도통전 東國巨傑崔都統傳〉 〈이순신 실가李舜臣實記〉와 〈이태리 건국 삼걸전 伊太利建國三傑傳〉 등으로 애국의 혈기血氣를 북돋고, 〈독사 신문 讀史新論〉에서 강건한 고대 세계 古代世界의 정신을 강조하고, 〈대한의 희망〉에서 「나라」를 되찾는 희망을 지니게 호소하였다. 단재가 희망과 정정 正正의 구한국을 맞치니*의 정열로도 구교하가가 어렵다고 단정하다시피 하면서도,

대大하다 아한我韓 금일今日의 희망希望이여

미美하다 아한我韓 금일今日의 희망希望이여

〈大韓의 希望〉

* 맞치니 (Mazzini) - 이탈리아 혁명가. 〈이태리 건국 삼걸전〉의 주인공으로 최고의 인간상인 理想의 理想의 理想인 1807-1871.

하고 부르짖은 것은 해체解體 직전의 한국인의 기력의 상실과 절망에 자극을 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역사와 국가와 애국심의 관계를 유기적有機的으로 추리하여,

「자신이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게 할 것이다.」(大意)

〈歷史와 愛國心의 關係〉*

라고 명백한 말로 역사의 이해가 곧 애국이라고 한 데서 단재의 역사의식이 곧 애국심임을 안다. 역사를 민족적 입장에서 보려 한 데서 그의 민족사觀은 애국정신의 기틀에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망명의 길을 떠나기에 앞서서, 일진회一進會의 매국도당賣國徒黨들이 민영환閔泳煥 등의 손국殉國을 평하여 「그저 죽었을 뿐이요 나라에 이 될 것이 없다(只殺其身이오 無益於國이라)」(與友人絶交書)* 하자 이를 통박痛駁, 조국을 버리지 말고 동포를 저버리지 말라고 질타했다.

또 같은 논지論旨로 유교도儒敎徒를 악용惡用하려는 매국노의 협잡을,

「존화주의尊華主義나 주장하며 완고사상頑固思想이나 고취鼓吹코자 하여, 확장儒敎擴張을 창행하는 자는 문명文明의 적賊이오 유교儒敎의 적賊이며, 미의배媚外派*의 요술妖術로 유교儒敎나 박멸撲滅하며 동포同胞나 유도誘導코자 하여 유교 확장을 창하는 자는 사회의 적賊이오 유교의 적賊이다.」

〈儒敎擴張에 對한 論〉*

라고 지적하여, 확장擴張이란 작란作亂으로 유교도를 매수하려던 구한국 괴멸책廢滅策의 하나를 비난 공격하였다.

*〈단재 신채호 전집〉
하권 三三—三六면 참조.

*〈여우인 절교서(與友人絶交書)〉—一九〇九年(대한매일신보)에 게재한 공개서한. 〈단재 신채호 전집〉 하권 三三면 참조.

*미의배(媚外派)의 세(外勢)의 추종자. 곧 일제(日帝)의 앞잡이라 함.

*〈단재 신채호 전집〉
하권 三三—三六면 참조.

五、植民地體制的破壞的否定

* 단재 신채호 전집 < 하권 三三〇—三三二 >

一九三三年一月에 발표된 <조선 혁명선언朝鮮革命宣言>*은 첫째 근대적인 혁명 정신이 집약적으로 체계화된, 단재 사상의 궁극적 도달점到達點으로 볼 수 있고, 둘째로는 단재가 작성한 이 선언을 통해서 단재의 독립 투쟁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 볼 수 있는 동시에, 국내—식민지 현실(일제 총독부의 식민지 체제)을 부정하는 가장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시했다.

그것은 현실의 파괴적破壞的인식 방법이기도 했다.

朝鮮革命宣言의 背景

<조선 혁명 선언>은 의열단義烈團*의 부탁으로 집필했다 하 고 그래서 이 선언을 <의열단 선언문義烈團宣言文>이라고도 하지만, 그러나 단재 자신이 사상적으로 의열단과 가깝고, 특히 「조선 독립」의 투쟁 방법에 있어서 합칠 수 있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베이징北京에서 의 조기初期「아나키즘」운동에 절대적 영향을 준 크로포트킨*의 「상호 부조相互扶助」의 정신에서 협력한 뜻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제작자 制作者로서는 곧 <조선 혁명 선언>으로써 식민지 현실에 대하여 폭력 혁명을 지시하고, 제작을 부탁한 의열단으로서는 <의열단 선언문>으로써 그들의 투쟁 방법은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독자성獨自性을 강하게 지니면서 독립 운동에 폭력 투쟁을 지향志向 실천

* 의열단(義烈團) — 一九二九年 滿州 吉林省(吉林省)에서 조직된 비밀단체. 폭력을 수단으로, 암살·파괴를 목적으로 한 항일 단체.
* 크로포트킨(Kropotkin, Peter) — 러시아의 무정부주의자. — 一八四二—一九三三.

* 다물단(多勿團) — 조선
 4년 단재가 베이징(北
 京)에서 조직 지도한
 단체. 다물(多勿)은 국
 토 회복(國土恢復)을 뜻
 하는 옛말.

* 리스칭(李石曾) — 중
 국의 사상가. 정치가.
 열마 전까지 타이완
 (臺灣)에 살고 있었음.
 「스스!」.

* 코오토쿠 슈우스이
 (秋徳秋水) — 일본의 사
 회주의자. 노일 전쟁
 (露日戰爭)에 반대, 후
 에 무정부주의자로 전
 향. 대역 사건(大逆事
 件)의 추모자로 형사
 (刑死)함. 一八七二—一九二二.

하던 단재로서는 다물단(多勿團)을 조직 투쟁할 때에도 역시 이 〈조선 혁명 선언〉의
 투쟁 방안을 그대로 행동의 강령(綱領)으로 삼았다.

이 〈조선 혁명 선언〉에서 단재가 독립 운동의 방법으로 이 끌어들이 「폭력 혁
 명」은, 그에 앞서 베이징(北京)에서 조기(初期) 아나키즘 운동을 벌이던 중국 학자와의
 접촉에서 아나키즘의 이해(理解)는 물론 곧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一九二二년 베이
 징(北京) 대학 교수로 있던 리스칭(李石曾)의 소개로 단재는 베이징(北京)의 관음사(觀音寺)에
 서 기거하게 되었고, 또 그의 소개로 〈사고전서(四庫全書)〉도 열람하게 되었는데, 단재
 와 리스칭(李石曾) 및 그 주변의 학자들과의 교섭이 있었음은 사상적 추이(推移)에 있어
 중시(重要)할 일이다. 리스칭(李石曾)은 청말(淸末) 아나키즘 수용(受容)의 선구적 인물이었다.
 더욱 그가 一九四五년 해방 직후 중국에서 「신채호 학사(申采浩學社)」를 설립하고 단재

전집(丹精全集) (중·영문본(英文))을 계획한 데에는 「아나키스트」로서의 동지적인 뜻이 있
 었을 것이며, 단재와 베이징(北京) 학자들간의 사상적인 교섭이 문헌(文獻)·실증적(實證的)
 분석(分析) 이상의 직접적인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단재가 일본 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코오토쿠 슈우스이(秋徳秋水)를 좋아한 것도 중국의 아나키스트들을 통해 코오
 토쿠(秋徳)와 중국 아나키스트 사이의 교섭을 이해함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듯
 단재는 〈조선 혁명 선언〉 작성 이전에 아나키즘에서 「폭력 혁명」의 방법을 독립
 투쟁에 직접(直接)시킬 정신적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으며, 〈조선 혁명 선언〉 작성
 외에도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과 함께 중국문(中國文) 잡지 〈천고(天鼓)〉를 발간하였다는 데
 이 잡지 제목으로 미루어 중국 아나키즘 잡지 〈천의보(天義報)〉가 연상되는 점도 간과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단재는 一九二七年 九月 無政府主義 東方聯盟에 가입하
고, 一九二八年 四月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배이징(北京) 회의에 참가 활동하는 등 직
접 독립 운동을 폭력으로 실천할 계획을 확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실천의 첫 단
계로 타이완인(臺灣人) 린핑원(林炳文)과 행동(국제 위계國際爲務)을 위조하였다(함)을 시작
하다가 일경(日警)에 체포되었다.

強盜侵權政治의 真相

〈조선 혁명 선언〉에서 단재의 투쟁적 민족 독립 방안은 보
면, 우선 칠포리에 「강도(強盜) 일본이」하고 내세운 말부터가
독립 운동의 공개 문서(公開文書)에서 최초로 사용된 격렬한 용어일 것이다. 이어서,

「우리의 국호(國號)를 없이 하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 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이 서두의 일절은 곧 일제(日帝)의 식민지 약탈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이 결코 「합
방(合邦)」이란 말로 표현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을 실제로 표현하였다. 그 식민지
적 경제의 침탈(侵奪)을,

「경제(經濟)의 생명인 산림(山林)·천택(川澤)·철도·광산·어장……내지 소공업 원료까지
다 빼앗아 일체의 생산 기능을 칼로 베며 도끼로 끊고, 토지세·가옥세·인구세·차축
세·배일세(配日稅)·지방세·주초세(酒草稅)·비료세·종자세(種子稅)·영업세·청결세(清潔稅)·소
독세……기타 각종 잡세(雜稅)가 죽일(逐日) 증가하여 혈액(血液)은 있는 대로 다 빨아가고…」

이어 (1) 상업은 일본 상품의 중매인(仲買人)이 되어 차츰차츰 자본의 집중화에 따라

최장하고, (2) 인민 대다수인 농민은 연생산(年生産)의 대부분을 「일본 강도에게」 빼앗기어 그들의 영속(永続)된 우마(牛馬)가 될 뿐이며, (3) 또 일인(一人) 이민(移民)의 급속한 증가로 「말각밭이」(일인 나막신)는 소리에서 형(形)한 말(말) 등밖에 쫓겨 산으로(그 당시 입산 화전민이 적중), 서북간도(西北間島) · 시베리아의 황야로 몰려서 「아귀(魚鬼)부더 유귀(遊鬼)」가 되었다고 민족적 궁핍화(窮乏化) (경제적 몰락)를 지적하였다.

이렇듯 우선 경제적인 현실을 약탈과 몰락으로 대(對)항(抗)분(分)석(石)하고, 이어 「강도 일본」의 현병(現兵)정치와 경찰(警察)정치가 「민족의 행동(行動)을」 또 일본 · 출판 · 결사 · 집회의 일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얼마나 고통 · 분(分)한(汗)으로 「백(白)리의 가슴」이나 「막지(막)하였는가? 자녀를 낳면」 일(一)인(人)口(口)를 구(求)어(求)라, 일(一)문(文)을 구(求)무(無)이라(하)는 노예(奴)를 길러내는 학교에 보내고, 조선 역사를 일(一)게 되면 「일본(日本)놈들의 죄(罪)은 대로 일(一)게 되며」 (여기서 일(一)제의 식(食)민(民)지(地)적(的) 조(造)작(作)된(된) 역(역)사(史)를 제(制)시(示)하였다), 식(食)문(文) · 장(將)지(地)를 부(부)다(多)하면 「강도 정치(強盜政治)를 차(差)미(美)화(化)하는」 노(奴)예(例)적(的) 문(文)자(字)뿐(뿐)이며, 똑(똑) 똑(똑)한 자(子)제(子)弟(弟)는 「역(歷)세(世) 전(全)망(望)하거나」 음(陰)모(謀)사(事)건(件)陰(陰)謀(謀)本(本)件(件)의 명(名)칭(稱)하(하)에 감(感)응(應)에서 주(主)리(理)를 틀(틀)리는(는) 자(子)양(養)의 악(惡)형(刑)罪(罪)을 제(制)시(示)하였다) * 등(等)바(巴)다(多)에 에(外)위(外)사(事)인(人) 三(三)천(千)리(里)가 하나(一)의 큰(큰) 감(感)응(應)으로 변(變)하여 민족(民族)을 「노예(奴)隷(隷)부(部)터 기계(機)械(械)」로 만들(製) 뿐(뿐)이며, 一(一)九(九)〇(〇)五(五)년(年) 이후(後)의 병(兵)亂(亂)에 대한 일본(日本) 군(軍)대의 폭행(暴行)은 다(多) 적(積)을 수(數) 없(없)지(不)와(와), 三(三) · 一(一)운(運)동(動) 이후(後) 수(水)원(源) · 선(先)천(天)유(有) · 서(西)북(北)간(間)도(道) 西北(西北)間(間)島(島) · 연(延)해(海)주(州) 沿(沿)海(海) 각(各)처(處)에서 「지(地)민(民)을 도(毒)류(流)屠(屠)」 「춘(春)락(落)을 소(小)화(化)燃(燃)」 「재(在)산을 약(弱)탈(奪)」, 아(亞)동(東) · 부(婦)녀(女)에 대한 악(惡)형(刑)罪(罪) · 오(汚)류(流)屠(屠) (이것은 해방 후 일본(日本)측(側)의 군(軍)정(政)보(報)자(資)료(料) 露(露)情(情)報(報)資(資)料(料)와 독(毒)립(立)투(투)사(事)들(들)의 기록(記)에서 이해(理解)되(되)는)은 민족(民族)을 압박(壓)박(迫)하여 「인(人)간(間)의 산(山)송(送)장(將)」을 만(滿)들(들)려(려) 한다(다). 이러한 사실(事實)로서,

* <단제 신채호 전집>
하권 332면 218행 참
조.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強暴政治 곧 이족 통치 異族統治가 우리 조선 민족 생존의 적敵임을 선언하는 동시에 우리는 혁명 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殺伐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이러한 「선언」은 독립 운동사에 있어서 공개公開된 단 하나의 「선언」이며, 일제 日帝의 식민지 현실에 대하여 타협 없는 투쟁의 「선언」으로서, 조기 初期 중국이나 키쨌 운동에서 「암살暗殺」을 제 1의 수단으로 하였을 때의 방법을 그대로 독립 운동에 직결시킨 것으로 보인다. 단재는 민족 독립에 필요한 것이면 현실에 이용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서 아나키즘의 투쟁 방법을 원용 援用한 근본의 根本義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이상 〈조선 혁명 선언〉 제 1 단락에서는 일제 식민지 정책이 민족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빚었으며, 그에 대해 어떻게 투쟁할 것인지의 방향을 잡고 있다.

民衆直接革命의 길

다음 제 2 단락에서는 一九二〇년대에 일어난 타협적인 자치 운동 自治運動 즉 일제 日帝의 문화 위장적 文化的 · 강압적인 식민지 정

책에 대해서, 그 자치 운동은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식민지하에 있어서 문화 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며, 식민지에 있어서의 조작된 위장 문화 偽裝文化란 해를 만 끼칠 뿐임을 지적, 자치 운동 · 문화 운동자를 한데 모아 「다 우리의 책임을 선언하노라」 하고, 「강도 일본과 타협, 그 정치하에서 기생蟲을 하려는 생각을 공박하였다.

제 3 단락은 「외교외교로써 호국 護國」의 방법을 삼은 오류 錯誤를 지적하여, 조선 五백 년의 문약 정치 文弱政治와 더욱 그 말세 末世에 있어 일본 침략을 당해서의 착오 錯誤를

지론하고, 첫째 외세(外勢)의 존의 배격, 둘째 침략자를 물리치기 위한 「준비론(準備論)」의 검토(大)보다, 「민중 직접 혁명(民衆直接革命)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였다. 외세를 배격하는 투쟁은 대중적 저변(底邊)의 힘으로만 가능함을 지적한 것이다.

제4단에서 「조선 민족의 생존을 유지하자면 강도 일본을 구축(驅逐)할지며, 강도 일본을 구축하자면 오직 혁명으로써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구축할 방법이 없는 바」이라 전제하고, 그 방법으로는 우선 민중(民衆)의 각오(覺悟)가 요구되고, 민중의 각오는 민중 향상(발전)의 장애가 되는 것부터 타파하여 「선각(先覺)한 민중」의 전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先驅)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일반 민중이 아사(餓死)보다 혁명의 길을 택하게 하자는 데서,

「민중의 신생면(新生面)을 개척하자면 양병(養兵) 一〇만이 一척(擲)의 작탄(炸彈)만 못하며, 여천(千) 장 신문 잡지가 一회 폭동(暴動)만 못할지니라.」

이렇듯 폭력적 혁명의 불을 질러 마침내 전체적 운동으로 이끌자는 것이다.

破壞를 통한 新生

이러한 주장은 갑신 정변(甲申政變)에서 三·一 운동까지의 일련의 역사적인 개혁·항쟁(抗爭)을 비판하는 논리(論理)로서 적용(適用) 전

개되었으며, 「독립을 못하면 살지 않으리라」 「일본을 구축(驅逐)하지 못하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굳은 뜻을 갖고 전진하면 목적을 관철하고 말 것이니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간첩(奸細)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고 한데 이어, 폭력—암살·파괴·폭동의 목적(目的)을 설정하여 (1) 조선 총독 및 각 관공리(官公吏), (2) 일본 천황 및 각 관공리, (3) 정탐노(偵探奴)·맹국적(賣國賊), (4) 적의 일체 시설

*작탄(炸彈)—폭탄(爆彈)。

〔編輯註〕이「丹齋申采浩」편은 필자 홍이 삼박사가 차별히 편집자 앞으로「너무 늦고 원고 난잡하여서 미안합니다. 잘 정리 해주시고 校正한 번 보도록 해주십시오. 校正刷 보내실 때는 원고도 함께 보내 주십시오(원문대로)란 附箋이 붙어 있었으나 불행히 박사의 갑작스런 서거로 교정을 하 시지 못했음을 부기해 듭니다.

애국심의 고취效를 보고 또 민족적 역사 의식의 결여 缺如를 통박 痛切한 <속사 史論 歷史新論> 등에서 치열한 주체 의식 主體意識을 본다. 망명 客사 客舍에서 고국에 보내 <조선사 연구초>의 여러 논고와 <조선 상고사> <조선 상고 문화사>에서는, 구한말 의 민족적 의식의 전개를 우선 고구려 중심의 고대적 세계의 추구에 두고서, 민족 의 역사적 활동을 합리적·실증적 實證的·근대적 近代的인 역사 의식으로 구김없이 펼 칠을 볼 때, 우리는 일제 日帝의 갖가지 조작 造作이 그 식민지적 사관 史觀의 소산 所産임 을 적확的 確히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족사로서의 전기간 全期間의 인식의 체계화를 보지 못하였으니, 비록 근대 近代(구한말의 역사적 상황의 이해)는 구한말의 제 논문들 통해서, 그리고 식민지 현실은 <조선 혁명 선언>을 통해서 집약적으로 비판 논구 論究되었으나, 지금 우리들이 미비·부족함을 느끼는 것은(대략 전집 全集 상·하 두 권에 수록된 것으로 추리되듯), 망명 중국 현지에서 집필한 글을 가능한 한 보지 못하고 단재의 사상을 논위 論議함이, 타협 없이 강경하던 단재의 정신을 그릇침이 없을까 하는 데서 당시의 문장이 아쉬울 뿐인 것이다.

단재의 민족적 역사 정신은 민족 독립을 목적으로 강행 強行하자는 데로 혼용 混融되며, 아나키즘에서 수용 受容한 폭력의 기저 基底로서의 민중 民衆은, 단재 사학 丹齋史學의 이념에서 본다면 아我—우리 민족에 대체 代替된 새로운 「말」(언어 言語)일 뿐으로, 실질적으로 단재의 사상에서는 동의어 同意語에 지나지 않는다. ■

參考文獻

丹齋申采浩全集 上下 二冊, 一九三三, 서울

宋相巖 騎驢隨筆

朴殷植 韓國獨立運動之血史

崔永禧 朝鮮上古史, 韓國의 名著, 玄岩社,

一九三九

나라사랑 세트집, 단재 신채호 선생 특집호

(특히 千寬宇 · 金哲俊 · 金泳鎬의 논문) 一九三七 · 七

申一澈 申采浩의 自強論的 國史像, 韓國思想 第二輯, 一九三三 · 八

*이외에 筆者가 解放後에 斷片的으로 丹齋史學을 紹介한 論文이 있으나, 一, 二의 冊子와 本論文을 읽는 데서 解消될 것이어서 다시 添加하지 않는다.

〈玄岩新書〉를 刊行하면서

우리는 지금 경이적인 變革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나날이 진보하고 있는 과학의 발달, 경제 구조의 변화, 技術의革新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지혜가 도처에서 빛나고 있음을 본다.

세계의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는 역사상 유례 없는 跳躍의 段階로 進入하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그러나 우리 民族의 成長이 반드시 技術化의 촉진으로서만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技術革新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먼저 精神文化의 올바른 바탕을 찾고 民族傳統의 줄기 위에서 부단히 生成되는 創造的 精神의 배양이야말로 民族成長의 바람직한 길임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知識과 知性은 지난날처럼 어떤 특정한 율타리 안에

집거해 있어서 안 된다. 剝製된 知識, 무관심한 知性처럼 文化發達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것은 없다. 오늘날 우리들의 知的 廣場은 범국민적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필연적에서 있음을 절실히 느끼는 바이다.

이러한 때에, 古典의 現代化 작업을 통해 民族文化의 深化에 박차를 더해 온 玄岩社는 시대적 필연성을 동감하여 「東西古典의 現代化」와 「尖銳한 最新知識의 體系化」라는 지표 아래 〈玄岩新書〉를 刊行하게 되었다. 앞으로 이 시리즈가 知識의 擴散昇華는 물론, 知性의 大衆化에 커다란 기여가 있기를 우리는 염원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노력은 높은 水準의 內容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읽기 쉽게 편집하면서 가능한 한 값싼 값으로 아름답게 제작하는데 경주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企圖은 未來를 향해 언제나 열려 있을 것이다.

一九五〇年 玄岩 趙相元

